

기자가 직접 시승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내부 인테리어

아이오닉 일렉트릭 주요 제원

차체 크기	전장	4,470mm
	전폭	1,820mm
	전고	1,450mm
	휠베이스	2,700mm
EV 시스템	배터리용량	28kWh
	모터 최대출력	88kW
	모터 최대토크	295Nm
충전 시간	완속	4시간 25분
	급속	100kW 기준 24분 50kW 기준 33분
1회 충전 주행거리		191km (복합 기준)
최대 속도		165km/h
공차 중량		1445kg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한번 충전으로 191km를 갈 수 있다. 국내 최장 주행거리 전기차다.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혜택을 받으면 2000만~2500만원 선에 구입할 수 있다. 사진제공 | 현대자동차

1회 충전만으로 평균 191km 주행
최대출력 120마력·토크 30kgf·m

전기차는 느리고 멀리 못간다는 편견을 지우다

전기차의 시대는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electric)이 추가되면서 국내에서 구입 가능한 전기차는 기아 레이, 르노삼성 SM3, 한국지엠 스파크, BMW i3, 기아 소울, 니산 리프, 파워프라이자 라보 PEACE 등 8종으로 늘었다.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마리나에서 강동구 카페 스테이지 28까지 왕복 약 66km 구간에서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시승했다.

●아이오닉 일렉트릭의 최대 장점은 주행 거리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전기차 대중화의 첨병으로 주목되는 이유는 주행거리에 있다. 기존 승용차들이 1회 충전시 130~150km 내외의 주행거리를 지닌 반면 현대차의 친환경 전용 모델 아이오닉의 전기차 버전인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국내 최장 1회 충전 주행거리인 191km(도심 206km/고속도로 173km)를 자랑한다. 공인 복합연비 수치상으로는 서울에서 대전(190km), 평창(184km)까지 갈 수 있는 주행거리다. 방전 걱정을 하며 시내 주행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장거리 주행까지 가능한 전기차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실제 주행 가능 거리는 기대 이상이었다. 시

승이 진행된 서울마리나에서 카페 스테이지 28까지 약 29km 구간의 편도 구간에서 기자가 기록한 평균 연비는 11.7km다. 올림픽대로를 거쳐 도산대로, 영동대로로 이어지는 시내 구간도 코스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꽤 높은 실연비다. 올림픽대로와 시내 구간이 모두 막히는 러시아워에서 평균 주행 속도는 50~60km였다.

전기차도 가솔린이나 디젤, 하이브리드 차량과 마찬가지로 급가속을 삼가고 예측 운전을 통해 탄력 주행을 이어가면 연비가 좋아진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의 최장 주행거리는 복합 기준 191km지만, 회생제동을 활용하며 연비 주행을 한 결과 평균 연비 11.7km를 기록할 수 있었다. 이를 총 주행 가능 연비로 환산하면 약 315.9km에 이른다.

물론 연비를 의식하지 않고 스포츠 주행을 하면 연비는 6~7km대로 푹 떨어진다. 하지만 연비 위주의 주행 습관을 들이면 전기차 구매를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인 총 주행거리를 충분히 늘릴 수 있다.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연비 강화를 위해 전력 기술 최적 설계를 통한 전력 손실 최소화, 플러터커버, PTC 히터, 각종 저항을 줄이는

기자가 기록한 평균 연비는 11.7km/kWh 총 주행 가능 연비로 환산하면 약 315km

2.0 디젤 엔진 부럽지 않은 파워풀한 가속
조용하고 쾌적한 주행...편의사양도 매력적

디자인 적용 등으로 공기저항계수 0.24Cd를 달성해 주행거리를 향상시켰다. 또한 운전석과 조수석에 개별 공조기를 적용해 주행 거리 감소 리스크도 최소화했다.

배터리 충·방전 예측관리 시스템을 통해 방전 걱정을 덜어준다. 운전자의 주행 패턴을 분석해 남은 주행가능 거리를 알려주고,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충전소를 검색해 팝업 방식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준다.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완속 충전시 약 4시간25분, 급속 충전시 약 23분이 소요된다.

●스포츠 드라이빙도 충분히 가능한 성능
전기차에 대한 편견 중 하나는 천천히 달릴 수밖에 없는 차라는 오해다. 하지만 그렇지 않

다.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고출력 구동 모터와 저속을 감속기를 조합해 파워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속도가 올라가는 가속감을 느낄 수 있다. 아이오닉 일렉트릭의 최고 출력은 120 마력, 최대 토크는 30kgf·m이다. 2.0 디젤 엔진 수준의 토크를 통해 스포츠 주행도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0rpm에서부터 최대 토크가 발휘되기 때문에 순발력이 매우 뛰어나다. 통합주행모드 시스템도 적용되어 있어서 스포츠, 노멀, 에코 모드 등 원하는 스타일의 주행을 즐길 수 있다. 실제로 각각의 주행 모드는 가속 성능이 확연히 구별될 정도로 높은 변별력을 지녔다.

정숙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엔진이 없기 때문에 엔진 소음 자체가 들리지 않는 데다 전기차에 최적화된 미쉐린 타이어, 차음 윈드 실드 적용 등으로 탁월한 정숙성을 경험할 수 있다. 이처럼 조용하고 쾌적한 주행 감성은 전기차 아니면 절대 느낄 수 없다.

●첨단 안전 및 편의 사양도 매력적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안전 및 편의 사양이 고급 세단 수준이다. 설정한 속도로 주행하면서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해주는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카메라로 전방 차선을 인식하고 핸들을 제어해 운전자가 차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주행 조향 보조 시스템(LKAS),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충돌이 예상되면 차량을 제동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 등이 적용되어 있다. 또한 오토홀드 기능이 적용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도 갖추고 있다.

●아이오닉 일렉트릭 컴포트 프로그램 운영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소비자의 충전, 정비, 방전 걱정을 줄여주기 위해 컴포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홀 충전기와 관련된 모든 상담과 설치, AS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해 준다. 또한 10년 20km 배터리 보증 서비스도 제공된다. 제주지역에 한해서는 차량 방전시 긴급 출동해 인근 충전 시설로 이동시켜주는 긴급 출동 충전 서비스도 시행된다.
아이오닉 일렉트릭의 가격은 4000~4300만원(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 적용 기준)이며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혜택을 받으면 2000~2500만원선에 구입할 수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현대·기아차,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30만원부터 최대 120만원까지 할인

현대·기아차가 노후 경유차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교체 지원에 나선다. 10년 이상 된 경유차량을 폐차한 고객이 신차를 구입하면 차값을 3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노후 경유차 신차 교체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정부의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량(최초 등록기준) 보유차 신차 구입 개별소비세 70% 감면(최대 100만원 한도) 정책' 시행 시점에 맞춰 실시하게 될 이번 프로그램은 정부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하게 됐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노후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의 상당수가 차량을 교체하는 데 차량 가격을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 차종과 지원 혜택을 넓혔다.

현대자동차는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량 보유 고객이 노후 차량을 폐차 처리한 후에 엑센트, 아반떼, i30, 벨로스터, 쏘나타, i40, 투싼 등의 차량을 구입하면 50만 원, 그랜저, 아슬란, 제네시스(DH), G80, EQ 900, 싼타페, 맥스크루즈 차량을 구입하면 70만 원을 지원해 준다.

기아자동차도 이번 트 대상 고객이 모닝,



기아자동차 '쏘렌토'

레이, 니로 등의 차량 구입시에 30만 원을, 프라이드, K3(줍 포함), K5, 쏘울, 카렌스, 스포티지, 모하비 등의 차량 구입시에 50만 원을, K7, K9, 쏘렌토, 카니발 구입시에 70만 원의 차 값을 지원해 준다.

아이오닉, 쏘나타, 그랜저, K5, K7 등의 하이브리드 모델(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제외) 구입 시에는 12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스타렉스, 포터, 봉고 등의 소형 상용차량도 프로그램 대상 차종으로 선정하고 100만 원을 지원해 생계형 노후 경유차량 보유 고객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10년 이상 운영하던 경유차량을 폐차한 고객이 현대자동차 그랜저 3.0 익스클루시브 컬렉션 모델(3920만원)을 구입하면 정부의 개소세 70% 감면 혜택 143만원에, 신차 교체 지원 프로그램 금액 70만 원을 더해 총 213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원성열 기자

쉐보레, 전시장만 방문해도 '해외여행 상품권' 쏜다

쉐보레 써머 페스티벌 이벤트...90명 추천

쉐보레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쉐보레 전시장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쉐보레 써머 페스티벌' 이벤트를 개최하고 총 90명에게 해외여행 상품권을 증정한다.

8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가까운 쉐보레 전시장에 방문해 응모할 수 있다. 매주 추천을 통해 5명(동반인 포함)을 선정해 120만 원 상당의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해외여행 상품권을 제공하고, 선착순 1만명에게는 5000 원 상당의 해피콘을 제공한다. 한국지엠 리테일 마케팅본부 조인상 상무는 "일단 쉐보레 제품을

보내 구입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자신감을 토대로 이번 이벤트를 개최한다. 보다 많은 고객들이 전시장에 방문해 이벤트에 참여하고 쉐보레 제품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에 쉐보레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은 최대 300만원의 현금할인과 다양한 할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7월에는 전체 승용차 대상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인해 상대적으로 늘어난 고객의 부담을 줄이고자 차량을 3년 이상 보유한 고객이 트렉스, 울란도, 캡티바 등 쉐보레 RV 차량 구입시 추가로 50만 원의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 원성열 기자



쉐보레(Chevrolet)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쉐보레 써머 페스티벌' 이벤트를 개최한다. 8월말까지 매주 5명에게 120만원 상당의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해외여행 상품권을 제공한다. 사진제공 | 쉐보레

한국타이어 '오로라', 9개 제품·15개 사이즈 선보

국내 라인업 확장...소비자 다양한 취향 충족

한국타이어가 국내 트럭·버스용 타이어 시장 공략을 위해 글로벌 브랜드 '오로라(Aurora·사진)'를 총 9개 제품 15개 사이즈로 확장해 국내 시장에 선보인다. 이를 통해 한국타이어 브랜드 만으로는 전부 포괄하기 어려웠던 국내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충족시키며 전략적인 브랜드 포트폴리오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타이어는 앞으로 트럭·버스용 타이어의 프리

미엄 브랜드 '한국타이어'와 합리적인 가격의 글로벌 브랜드 '오로라'로 차별화해 운영한다. '오로라'는 UR11+, UZ05+ 등을 포함한 총 9개 제품으로, 15개 사이즈를 판매한다. 국내 지형과 요구 수준에 맞는 내구성, 마일리지, 연비 등을 고려해 개발됐다. 글로벌 품질 일원화 정책과 '스마트(Smart + Technology)' 기술에 기반해 최고 수준의 품질 기술력을 투입했다. 한국타이어의 모든 트럭·버스용 타이어들 역시 안전, 마일리지, 제동성 등 주요 기술이 집



요구를 충족시키며 고객 만족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